

아침햇발

김금수 논설위원



“하루에 잔업을 포함해 11시간 가량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또 휴일 특근에다 며칠에 한번꼴로 철야까지 하는 우리들에게는 30분 일 더한다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출퇴근 시간 약 2시간을 보태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셈이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 최인재씨가 쓴 ‘10% 절약과 일 더하기 운동’의 한 대목이다. 흔히 대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의 실태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 40시간 노동을 향해

을 노사교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이것은 노조측이 올해 단체협약 경신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단계적인 실천방침을 관철하려는 데서 비롯된 양상이다. 한국노총은 96년과 97년에 걸쳐 주당 42시간 노동을 확보하고 2000년까지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겠다는 행동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근거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수호,

는 실정이다. 주48시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들 나라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카오는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다른 나라들은 지불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순위는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오랜 시기에 걸쳐 점차 성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구조적인 성격마저 띠고 있다. 일제 통치시기에는 식민지착취 방식의 반영하여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또는 15시간)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일제가 물러간 뒤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60년대와 70년대 중반에도 노동시간은 주50시간을 웃돌았다.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주50시간이 계속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다음해인 88년부터 주50시간을 밑돌게 되었다.

이런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어 온 것은 이윤 극대화를 노린 자본의 탐욕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온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상태, 노동시간 연장을 목적으로

일 덜하기 운동의 미덕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오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력 수급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고용감소 저지, 국민소득 향상과 경제발전 등에 따른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문화적 생활 향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대응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 가운데 주42시간 노동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40시간 요구를 전면화해 최소한 주42시간 노동을 단체협약으로 굳히고 하반기에는 주40시간 노동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노조의 이런 노동시간 단축 운동은 장시간 노동이 가져온 갖가지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노동시간 실태는 과연 어떤가. 95년 현재 전산업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백7시간이고, 이 가운데 정상 노동시간은 1백81시간이며 초과 노동시간은 26시간이다. 주당 노동시간으로 치면 47.7시간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이 보다 긴 편인데, 월 노동시간은 2백13.7시간으로 주49.2시간이며 생산직의 경우는 51.6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노동시간 실태는 세계적으로도 장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의 노동시간으로 비교하여 우리 나라는 요르단, 수단, 이집트, 스리랑카, 마카오, 볼리비아,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 다음으로 여덟번째에 드

허용한 노동관계 제도와 정책, 강압적인 노동 통제 하의 노조 교섭력 취약 등이 상호작용하여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육체적 마멸과 정신적인 황폐화를 가져오게 되고 산업재해와 중병의 빈발을 부르게 되며, 고용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의 영위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본주의제도의 모순이 낳은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운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이런 투쟁이 1830년대의 12시간 노동제, 8시간 노동제,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에 이르렀다. 선진공업국들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40시간, 주휴 2일제는 노동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피로한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도 ‘내 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일 덜하기 운동’이 미덕이 아니라 ‘일 덜하기 운동’이 미덕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노동력을 파는 시간은 언제 끝나는가, 그러므로 잠깐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놓고 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노동자와 삶의 질을 얘기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